

종교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로 알려주세요.

창립 36주년 기념 부흥성회 은혜한인교회

창립 36주년을 맞은 은혜한인교회(담임목사 한기홍)의 창립기념 부흥성회가 장학봉 목사(한국성안교회 담임)를 감사로 초빙해 '복으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17일-20일 열렸다.

장학봉 목사는 부흥회 셋째날 '신바람을 회복하라' (시편 150편 1-6)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바람을 회복할 때, 언제 어디에서나 찬양이 가능하다. 첫째, 찬양은 교회 내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다. 길을 걸으며, 집과 직장 등에서 일을 하며, 얼마든지 영광 돌려 드리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파이프 오르간에 맞추어 엄숙하게 부르는 찬송만이 진정한 찬양은 아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자연만물,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훌륭한 찬양의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셋째, 찬송은 편안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그치지 말고 주의 나라에 닿을 때까지 아니 천국에 들어가서도 호흡이 있는 동안 쉬 없이 드려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의 마땅한 의무이다." 라고 역설했다.

'2018 세계선교대회' 예정합동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세계선교회(GMS) '2018 세계선교대회'가 G-Bridge(복음의 브릿지-Gospel Bridge, 열방의 브릿지-Global Bridge, 차세대 브릿지-Generation Bridge)란 주제로 오는 6월 25일(월)-28일(목) 4일간 대전 새로남교회(담임목사 오정호)에서 열린다.

이 행사에는 선교사 700여 명, 국내교회 1,000여 명, 선교단체 1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김찬곤 GMS 이사장(안양석수교회 담임)은 "이번 대회는 1907년 총회 설립과 함께 첫 선교사를 파송한 후 111년간 이어온 개혁주의와 순교적 신앙을 계승하고, GMS선교 20주년을 맞아 한국선교를 재점검하며, 미래의 선교전략 마련과 차세대 선교동원을 목적으로 한다. 미주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동참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족한 줄로 매기라 (디모데전서 6:6-10)

얼마 전 여러 나라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실은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 가난한 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심방을 하다보면 그만하면 충분히 행복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가정, 그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불행하게 사는 것을 때때로 발견을 합니다. 원인은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분수를 지켜 스스로 만족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행복을 행복으로 누릴 줄 아는 지족, 즉 족한 줄로 여기는 생활 자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바람직하게 사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족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이 이 세상에 와서,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하고 가야하는 인생입니다. 한자로는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요, 스페인의 격언으로는 "수익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이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다미엔 신부를 기억합니다. 이 분은 평생 외딴 섬에서 나병환자들을 위해 살다가 자신도 그 병에 걸려 숨을 거둔 분입니다. 이 분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 주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바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던 것처럼 내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 바치고,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날 때와 마찬가지로 빈손으로 주님께 돌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왔다가 또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가야하는 인생임을 생각하면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가진 것에 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했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진 것에 족한 줄 아는 마음에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만족하면서 감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참된 행복이 깃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억지로 부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

해지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부해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 빠져 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었도다."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성경은 결코 돈의 필요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의 대상이 물질,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에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정 이미 받은바 은혜와 축복을 족한 줄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며 사는 사람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족한 줄로 여기라, 오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대식 목사-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Eric Kang, featuring a photo of him and a table of property listings with prices and details. The table includes listings for Pasadena, La Habra, and Arcadia with various room counts and prices.